

» 해외 AI 발생 동향과 국내 대응방안

##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 및 발생국 정보 공개가 국경 검역에 기여할 것



이 중 혁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위험평가과 수의주무관

외국의 동·축산물 수입허용 요청 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평가과는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안전한 동·축산물만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해외 가축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될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및 각국의 동·축산물에 대한 검역조치 사항 등 해외 가축위생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에 따라 유관 기관과 전 국민에 제공하고 있다.

### 1. 작년(2016년)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동향 분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2015년에 33개국에서 1,692건 발생하였으나, 2016년에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49개 국가에서 1,100건이 발생하여 발생국가수는 증가(△33%)하였고 발생건수가 감소(▽35%)하였다. 유럽(637건)과 아프리카(263건)에서 다발하였고 혈청형은 주로 H5N8형(668건)이었다.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헝가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유럽국가와 대만의 가금사육 농장과 야생조류에서 발생하였다. 2016년 1월 11일에 미국에서 칠면조 43,500마리 사육 농가에서 H7N8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일본에서는 작년 11월부터 12월 2달 동안 가금(산란계 등) 사육 농가 등에서 9건의 H5N6 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

표 1. 2016년 국가별·혈청형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016.12.31일 기준)

구분	대륙	국가	2016											소계
			H5	H5N1	H5N2	H5N5	H5N6	H5N8	H5N9	H7N1	H7N3	H7N7	H7N8	
사육 가금	아시아 (14개국 152건 발생)	중국		1			7							8
		일본					7							7
		대만			26			19						45
		미얀마	1				1							2
		라오스		1										1
		베트남		4			7							11
		캄보디아		1										1
		부탄		1										1
		이란							12					12
		이스라엘							13					13
		인도		5					28					33
		쿠웨이트							1					1
		이라크	11	4										15
		레바논		2										2
	가나		22					2					24	
	나이지리아		213				2	1					216	
	니제르		2										2	
	카메룬		2										2	
	토고		2										2	
	코트디부아르		13										13	
	알제리									1			1	
	이집트							1					1	
	독일							26					26	
	러시아	7											7	
	영국							3					3	
	프랑스		5	5				95	4				109	
	헝가리							186					186	
	불가리아	22											22	
	네덜란드							6					6	
	덴마크							1					1	
	루마니아							1					1	
	세르비아							3					3	
	스웨덴	1						1					2	
	슬로바키아	1											1	
	오스트리아							1					1	
	우크라이나	3											3	
	이탈리아										2		2	
크로아티아							1					1		
폴란드							21					21		
아메리카(2개국 29건 발생)	미국											1	1	
	멕시코									28			28	
	총계	46	278	31		24	422	4	1	28	2	1	837	

## 2.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국 정보 공개·관리 및 활용

### 1) 정보 공개

2011년 7월 이후부터 위험평가과는 주요 가축

전염병 발생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발생국 현황 등을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그림2. 참조)에 공개하고 관련 협회 등에 정기·수시적으로 통보하고 있다. 동 자료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동물검역-동물축산물검역-수입위험 분석-해외 가축전염병발생동향 또는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에 게시되어 있어 누구나 볼 수 있으며, 2016년 10월부터는 스마트폰 문자\*\*(그림2. 참조)를 통해 해외가축전염병 발생정보를 유관기관(84개 생산자단체 및 방역 기관 840명)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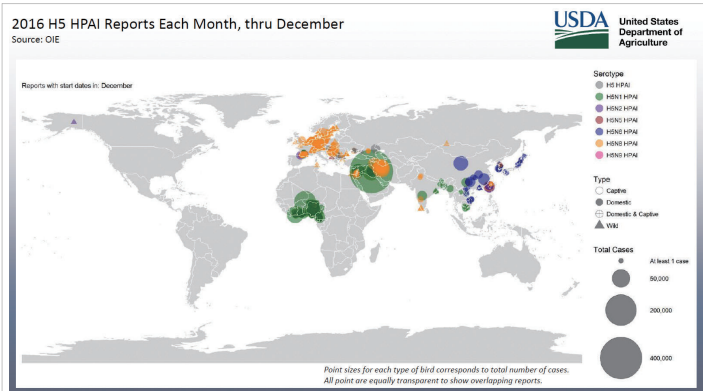


그림 1. 2016년 국가별·혈청형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표 2. 발생국 및 비발생국 인정기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매 반기말 기준으로 이전 3개 반기(1년 6개월) 동안의 발생여부 확인하여 발생시 발생국에 추가 및 비발생시 제외	
• OIE에 신규 발생 보고시 발생국에 추가	
• 우리나라가 청정국 인정시 발생국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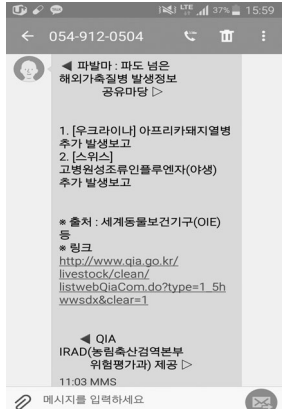
표 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현황 (2017. 6. 12일 기준)

질병	대륙	국가명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45개국)	아시아 (22개국)	대만, 라오스, 레바논,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북한,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터키, 팔레스타인, 홍콩, 일본, 쿠웨이트, 네팔,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12개국)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리비아, 부르키나파소, 이집트,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토고,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유럽 (19개국)	러시아, 불가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헝가리,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우크라이나, 폴란드, 세르비아, 영국,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체코, 루마니아, 그리스, 마케도니아 공화국, 룩셈부르크 대공국
	아메리카 (2개국)	멕시코, 미국

### 2) 정보 관리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평가과는 별도의 인정기준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을 관리하고 있다. 비발생국에서 동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발생국 정보를 갱신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되는 회원국의 반기별 가축전염병 발생자료를 확인하여 비발생국 인정기준에 충족될 경우 발생국에서 제외하고 있다. 2016년에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관리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은 45개국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확인하여 총 23회에 걸쳐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 현황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레바논, 팔레스타인, 헝가리,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우크

표 4.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및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 확인 방법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확인 방법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 확인 방법
<p>-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의 &lt;축산관계자 출국신고&gt; 메뉴에서 확인</p> <p>☞ 관련 홈페이지 주소 http://www.qia.go.kr/viewwebQiaCom.do?id=30487&amp;type=6_18bbxx</p>	<p>-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의 &lt;해외 가축전염병 발생동향&gt; 메뉴에서 확인</p> <p>☞ 관련 홈페이지 주소 http://www.qia.go.kr/livestock/clean/listwebQiaCom.do?type=1_5hwwsdx&amp;clear=1</p>
<p>- 공한만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전화 문의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 대표번호 : ☎ 1670-2870)</p>	<p>- 스마트폰 문자 제공 서비스 (파발마) (수신 신청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평가과, ☎ 054-912-0504)</p>
 <p>[그림 2.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p>	 <p>[그림 3. 스마트폰 문자 제공 서비스]</p>

라이나, 폴란드, 세르비아, 영국, 슬로바키아, 카메룬, 토고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에 추가하였다.

### 3) 정보 활용

지난 2011년 구제역 발생 이후, 우리나라는 방역 및 검역시스템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는 축산관계자 등이 해외여행을 할 때 여행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구제역 발생국인지를 참고하여 공·항만에서 소독조치를 취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

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2017년 6월 3일부터는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입국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위반 시 각각 300만원 이하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입국 신고 증가와 함께 소독 횟수 증가도 예상되는 바,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국 정보 공개를 통해 질병 유입의 가능성을 줄이고 보다 철저한 국경 검역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농림축산검역본부(위험평가과)는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 및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동시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앱)도 개발할 예정이다. **양계**